

#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수업안 요약서<sup>1)</sup>

제 목	달라서 좋아요
수업대상	만5세 유아
수업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각기 다른 능력이나 특성을 갖고 있어도 모두가 소중한다는 것을 안다.</li> <li>· 여러 가지 능력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.</li> <li>· 우리 몸의 기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도구와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다.</li> </ul>

단계	시간 (총40분)	수업내용	수업방법 (교사-유아)	수업자료 (매체/기자재)
도입	5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친구 4명이 '내가 좋아하는 것'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. 장애를 가져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 한다.</li> </ul>	이야기나누기	PPT
전개	15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편의시설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흔히 접하는 손잡이, 화장실 표시 그림 등을 제시하며 우리 몸의 기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.</li> </ul>	이야기나누기	PPT
심화	15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'바른 행동을 찾아보세요' 고르기 게임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 생활할 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퀴즈로 알아본다.</li> <li>◆ 친구를 대할 때 지켜야 할 약속 알아보기 앞()부분에서 나온 친구를 대할 때 장애 특성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이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본다.</li> </ul>	게임 및 퀴즈	PPT
정리	5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모든 사람들(친구들)은 한 명씩 보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각각의 사람이지만 다함께 모이면 하나의 멋진 공동체(예:00반, 00유치원)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.</li> </ul>	이야기나누기	PPT

1) 2017년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(주최:보건복지부, 주관: 한국장애인개발원)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한승희, 이해나의 수업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정 및 감수한 것입니다.

#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수업 상세원고

- 제 목 : 달라서 좋아요
- 수업대상 : 만5세 유아
- 수업목표
  - 각기 다른 능력이나 특성을 갖고 있어도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.
  - 여러 가지 능력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.
  - 우리 몸의 기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도구와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다.
- 교사와 유아간 학습내용의 충실화 방안
  - PPT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하여 교사와 유아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
  - PPT를 이용한 수업 이후에 사후 활동(예: 휠체어 면허 시험, 점자책 만들기 등)을 진행할 수 있음
- 학습내용에 대한 효과적 활용 방안(TIP) 등 기타 특이사항
  - PPT 슬라이드를 그대로 혹은 수정하여 사후 활동지로 활용 가능



- PPT를 클릭하며 오늘의 활동명에 대해 소개한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오늘은 ‘달라서 좋아요’ 라는 제목의 이야기나누기를 할 거예요.

지금 보이는 화면에 무엇이 보이나요?

유아: 휠체어요. 학교요. 남자친구요.

교사: 이 그림들처럼 오늘은 유치원에 있는 여러 다양한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  
거예요.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좋은지 한 번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?



- <장애의 정의, 행동 특성 및 능력 관련> 처음에는 친구들 그림만 나오며 클릭 후에 말풍선의 아래쪽 검정색 글씨만 나온다. 한 번 더 클릭하면 말풍선의 위쪽 파란색 글씨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각각 친구들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(클릭 전) 어떤 친구들이 보이나요?

유아: 고양이를 안고 있어요. V를 하고 있어요. 책을 들고 있어요. 목발을 짚고 있어요.

교사: 이 친구들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알아보까요? (클릭 후) 오른쪽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친구는 신나게 춤을 춘다고 해요. 왼쪽에 머리를 예쁘게 땀은 친구는 무엇을 좋아한다고 했나요?

유아: 책 읽는 거요.

교사: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?

유아: 네! 저요!

교사: 그렇구나. 좋아하는 것이 같은 친구들이 있구나. 그럼 고양이를 안고 있는 친구처럼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나요?

유아: 네! 전 강아지가 좋아요!

교사: 그렇구나. 친구들 중에서는 이 친구처럼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. 좋아하는 것이 같기도 하고, 다르기도 해요. 자,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하나 더 알려줄게요.

(클릭 후 나타난 말풍선 글씨를 읽어준다) 목발을 짚고 있는 친구를 한 번 볼까요? 다리 모양이 어떤가요?

유아: 다르게 생겼어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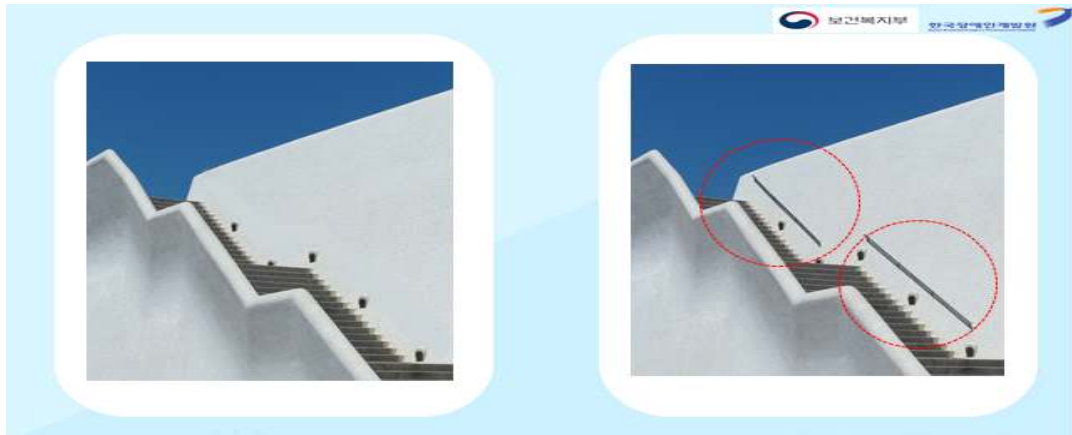
교사: 그렇죠? 우리 다리와는 다르게 생겼지만 이 친구는 다리에 찬 의족과 목발을 이용해서 걸을 수 있다고 해요. 또 여러분처럼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을 가장 좋아한대요. 이 친구들처럼 우리는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, 좋아하는 것이나 잘 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. 서로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 우리는 모두 7살 '친구'랍니다.



- <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> 다음 활동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로서 서로 다른 점이 많은 우리이기에 그 다른 점을 보완해주는 편의시설이나 도구가 있음을 사진/그림을 비교해보며 알아보도록 한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서로 우리의 다른 점, 같은 점을 알아본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사진, 그림에도 서로 다른 점, 같은 점이 있어요. 한 번 찾아보세요!



- <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> 처음에 두 사진을 보여주고 유아들에게 서로 다른 곳을 찾도록 한다. 유아가 나와 화면을 손으로 짚거나 발표를 하도록 하여 찾으면 한 번 더 클릭하여 서로 다른 곳(손잡이)을 동그라미로 표시해준다. 주변에서 흔히 보는 손잡이를 편의시설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꼭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임을 강조하여 알려준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사진에 무엇이 보이나요?

유아: 계단이요.

교사: 두 사진에서 다른 곳을 찾았나요?

유아: 왼쪽 사진에는 손잡이가 없고 오른쪽 사진에는 손잡이가 있어요.

교사: (클릭 후) 맞아요. ○○이가 말한 것처럼 오른쪽 사진에만 손잡이가 있어요. 이 손잡이는 왜 있는 걸까요?

유아: 잡고 올라가라고요. 그냥 올라가면 넘어질 수도 있어서 손잡이를 달았을 것 같아요.

교사: 맞아요.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손잡이가 없이도 잘 올라가는 친구도 있지만 손잡이가 있다면 훨씬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. 앞을 보는 것이 조금 어려운 친구는 그냥 올라가는 계단은 어려워도 손잡이가 있다면 혼자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리고 한 손에 무거운 짐을 든 엄마나 선생님도 손잡이가 있다면 더 안전하게 계단을 오를 수 있겠죠?

유아: 우리 할머니도 계단 오를 때 손잡이 잡고 올라가는 것 봤어요.

교사: 맞아요. 할머니, 할아버지가 이런 높은 계단을 올라가실 때 손잡이가 있다면 더욱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.



- <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> 이전 슬라이드처럼 두 사진을 보여주고 유아들에게 서로 다른 곳을 찾도록 한다. 이 그림은 화장실 표지판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으로써 유치원이나 일상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 화장실 표지판도 편의시설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.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어린 연령의 동생이나 아직 글자를 모르는 지적장애 친구가 ‘화장실’, ‘남자’, ‘여자’ 글자를 알지 못해도 그림을 보고 화장실임을 알고 남자, 여자 화장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한 것임을 알려준다. 가능하다면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직접 사용하는 화장실 표지판 사진으로 대체하여 비교해보도록 하여도 좋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이 그림들 사이에 다른 점을 찾았나요?

유아: 네, 왼쪽에는 사람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글자만 있어요.

교사: 맞아요. 잘 찾았어요. 이 그림들은 바로 화장실 표지판이에요. 혹시 우리 유치원에 있는 화장실 표지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나요?

유아: 네,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남자 그림하고 여자 그림이요.

교사: 맞아요. 잘 기억하고 있네요. 그림 글자만 써놓아도 되었을 텐데 왜 그림을 그려놓았는지 생각해볼까요?

유아: 더 잘 보이려고요. 소변이 급해서 빨리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글자를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림은 한 번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.

교사: 맞아요! ○○이가 정말 잘 말해주었어요. 친구들 중에서는 글자, 그림 모두 빨리 읽고 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유치원에는 우리처럼 7살 친구들 말고도 5살, 6살 동생들도 다니지요? 동생들 중에는 아직 글자를 모르는 동생들이 많아요.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글자를 아직 글자를 배우고 있어서 잘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. 글자를 잘 알거나 모르는 것에 상관없이 그림으로 남자, 여자 화장실 표시를 해 놓는다면 누구든지 이 그림을 보고 남자 화장실, 여자 화장실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.



- <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> 이전 슬라이드처럼 두 사진을 보여주고 유아들에게 서로 다른 곳을 찾도록 한다. 이 그림은 일반 버스와 저상 버스를 비교한 그림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버스에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함을 알려줄 수 있다.

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평소에 높은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는 유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와 같은 유아도 계단이 없는 저상 버스를 타면 더 편하게 탈 수 있음을 알려준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이 그림에는 무엇이 보이나요?

유아: 버스요. 할아버지요. 바퀴달린 의자요.

교사: 네, 맞아요. 바퀴가 달린 의자는 ‘휠체어’라고 불러요. 그림을 보니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?

유아: 버스를 타려고 해요. 그런데 왼쪽 그림에서는 버스에 타지 못했고, 오른쪽 그림에서는 웃으면서 타고 있어요.

교사: 맞아요. 혹시 이렇게 버스를 타본 친구가 있나요? 탔을 때 어땠는지 이야기해볼까요?

유아: 네, 버스 타는 것은 정말 재밌었어요. 그런데 계단이 조금 높았어요.

교사: 그랬구나. 보통 버스는 타고 내릴 때 높은 계단이 있어요. 그래서 친구들처럼 어린 친구들이나 더 어린 동생들은 버스에 탈 때 힘들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림 속 할아버지처럼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계단만 있다면 버스에 탈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해야 탈 수 있을까요?

유아: 계단을 없애야 해요. 버스에 탈 때 들어줘요. 오른쪽 그림 버스에 미끄럼틀 같은 것이 달려있어요.

교사: 네, 오른쪽 그림에는 버스에 경사로나 달려있어요. 안에는 아마도 계단이 없을 거고요. 이런 버스라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,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, 아빠도, 그리고 높은 계단이 힘든 우리 친구들도 편안하게 버스에 탈 수 있을 거예요.





- <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> 이전 슬라이드와 같이 우리 몸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도구가 있음을 추가로 소개해준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. 어떤 모습인가요?

유아: 개를 끌고 다녀요. 휠체어에 탔어요. 뛰어가요. 자전거를 타고 가요.

교사: 이 사람들은 걷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휠체어, 목발, 의족, 워커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걸을 수 있어요. 이 중에서 친구들이 본 적 있는 도구들이 있나요?

유아: 네, 목발 본 적 있어요. 휠체어 본 적 있어요.

교사: 이 그림에 있는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아래 개와 함께 가는 사람은 앞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길을 안내해주는 ‘안내견’ 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. 이 밖에 여러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.



■ <장애인 인권 관련> 4가지 상황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고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골라보는 퀴즈를 진행한다. 각 그림을 클릭할 때 정답인지 오답인지 바로 알 수 있다. 장애를 가진 친구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거나 놀이에 끼우지 않거나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임을 알려준다. 바람직한 행동으로 서로 돕기, 함께 놀이하기 행동을 알려준다.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꼭 장애를 가진 친구로 국한지어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친구든 생김새 등을 이유로 놀리거나 놀이에 끼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임을 알려준다. 또한 장애를 가진 친구도 항상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왼쪽 아래 그림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다.

■ 그림 설명

- ① 친구를 놀리고 있는 상황 - 바르지 않은 행동
- ② 놀이에 끼우지 않고 있는 상황 - 바르지 않은 행동
- ③ 휠체어를 탄 친구가 옆 친구에게 블록을 건네주는 상황 - 바른 행동
- ④ 여러 친구가 함께 놀이하는 상황 - 바른 행동

[시나리오]

교사: 자, 이번엔 4가지 그림 중에서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임을 할 거예요.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와 그림을 골라 직접 누르면 바른 행동이 맞는지 아닌지 화면에서 알려줄 거예요! 그럼 누가 나와서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? (바르게 손을 들고 있는 유아를 시킨다)

유아: (4개의 그림 중에 한 가지를 골라 화면을 누르거나 가리킨다.)

교사: (유아가 가리킨 그림을 클릭한다. 바른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 결과를 PPT로 알아본다.) (바른 행동을 골랐을 때) ○○이가 잘 맞춰주었군요. 이 그림처럼 서로 도울 수 있고 놀이감을 친구에게 건네줄 수 있어요. 또한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어요. 이런 행동들이 바른 행동입니다. 놀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나와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도 그 친구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함께 놀이할 수 있습니다.

<그림 출처: 교육인적자원부(2007). 유아를 위한 장애 이해 및 통합교육 활동자료>



- 앞 퀴즈에 이어 정답인지 오답인지 바로 알려준다. 결과를 안 뒤에 다시 우측 하단에 있는 학교 그림을 누르면 앞 퀴즈로 돌아온다.



- <장애인 인권 관련> 클릭 전에는 ① 그림이 나오며 클릭 후에 ② 그림이 나오면서 바르지 않은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을 알려준다. 장애를 가진 친구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놀이 상황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 화를 내기보다 기분을 물어봐주고, 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행동이 바람직함을 알려준다.

■ 그림 설명

-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친구의 작은 실수에 화를 내는 행동 | - 바르지 않은 행동 |
| ② 친구를 안아주는 행동         | - 바른 행동     |

[시나리오]

교사: 자,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? 친구의 표정은 어떤가요?

유아: 한 친구는 울고 있고 한 친구는 화가 난 것 같아요.

교사: 왜 화가 난 것 같아요?

유아: 친구의 발가락이 부은 것을 보니 친구가 밟고 갔거나 아프게 했나 봐요.

교사: 맞아요. 파란 바지를 입은 친구가 초록 바지를 입은 친구의 발을 모르고 실수로 밟았는데 발을 밟힌 친구가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.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?

유아: 아프긴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. 친구에게 아팠다고 말해요.

교사: 맞아요. 아프게 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실수로 그랬을 때는 크게 화를 내는 것보다 ‘너가 밟고 가서 아팠어. 조심해 줘.’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아요. 그렇다면 실수로 밟은 친구도 많이 속상해하지 않고 ‘미안해’ 라고 사과할 수 있겠죠? (클릭 후)우리는 모두 소중한 친구들이에요. 이 그림의 친구처럼 친구가 실수로 한 것은 이해해주고, 먼저 사과하고, 먼저 안아주는 친절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?

유아: 네!



■ <장애인 인권 관련> 클릭 전에는 ① 그림이 나오며 클릭 후에 ② 그림이 나오면서 바르지 않은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을 알려준다.

■ 그림 설명

- ① 놀이에 끼지 못하고 혼자 있는 친구 - 바르지 않은 행동
- ②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먼저 말하는 친구 - 바른 행동

[시나리오]

교사: 자,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? 친구의 표정은 어떤가요?

유아: 축구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친구가 없어서 혼자 시무룩하게 있어요.

교사: 그렇죠? 그런데 이 친구는 왜 혼자 있을까요?

유아: 가까이에 친구가 없었나 봐요. 같이 놀자고 말을 못해서요.

교사: 맞아요. 바로 근처에 친구가 없었을 수도 있고, 이 친구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기 어려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.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직 서툴러서 부끄러움을 탈 수도 있고요.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
유아: 같이 축구하자고 먼저 말을 걸어요.

교사: 맞아요! (클릭 후) 이렇게 혼자 있는 친구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‘같이 놀래?’ 라고 물어봐주면 친구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.



- <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관련> 잘 보이지 않는 친구,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대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본다. 4가지 보기 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(2번, 3번)은 클릭하면 사라지며 바람직한 행동(1번, 4번)은 굵은 글씨체로 바뀐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지금까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잘 생각해보며 이 퀴즈를 풀어봅시다. (퀴즈 문제와 4가지 보기를 함께 읽어준다.) 이 4가지 중에서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. 4가지 중에 선택해보세요.

유아: (바르게 손을 들고 4가지 중에 선택하여 대답한다.)

교사: (1번을 선택했을 때) 우와, 맞아요. 이 친구는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내 이름을 소개해야 해요.

(2번을 선택했을 때) 앗, 보기가 없어졌어요. 갑자기 나타난다면 이 친구와 부딪히거나 다칠 수가 있겠죠?

(3번을 선택했을 때) 이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항상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. 어릴 때부터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보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처럼 혼자서 걷고,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보고, 또는 친구가 먼저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맞아요.

(4번을 선택했을 때) 우와, 맞아요. 만약에 도와야 할 경우에는 손을 세계 잡고 이끌거나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친구의 팔꿈치를 살짝 잡고 도와주어야 해요. (2명의 유아가 나오도록 하여 시범을 보여준다.)



- <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관련> 움직일 때 어려움이 있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. 4가지 보기 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(1번, 4번)은 클릭하면 사라지며 바람직한 행동(2번, 3번)은 굵은 글씨체로 바뀐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지금까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잘 생각해보며 이 퀴즈를 풀어봅시다. (퀴즈 문제와 4가지 보기를 함께 읽어준다.) 이 4가지 중에서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. 4가지 중에 선택해보세요.

유아: (바르게 손을 들고 4가지 중에 선택하여 대답한다.)

교사: (1번을 선택했을 때) 이렇게 놀렸을 때 친구의 기분은 어떨까요? 좋지 않겠죠? 걸음걸이나 자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것으로 놀린다면 친구가 정말 속상해 할 거예요.

(2번을 선택했을 때) 친구와 같이 걸음을 맞춰 걷는다면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함께 산책할 수도 있겠죠?

(3번을 선택했을 때)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친구가 탈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 기다려줄 수 있어요. 이런 행동은 꼭 이 친구뿐 아니라 다른 친구나 가족들과 있을 때에도 먼저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버튼을 눌러 다음 사람을 기다려준다면 정말 좋겠죠?

(4번을 선택했을 때) 가끔 보면 휠체어를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밀어주는 친구가 있어요. 우리가 발과 다리로 걸듯이 이 친구에게는 휠체어가 친구의 다리에요. 어떤 친구가 내 다리를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밀거나 갑자기 앞으로 가자고 한다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겠죠? 기분도 안 좋고요. 친구의 휠체어는 친구의 몸처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만지거나 밀면 안 된답니다.

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


Quiz 3.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1) 친구의 보청기를 손으로 만져본다.

2) 친구의 뒤에서 놀라게 한다.

3) 말할 때 친구의 얼굴을 보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한다.

4) 시끄러운 곳에서 얘기할 때 글로 써서 알려준다.



- <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관련>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친구,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대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본다. 4가지 보기 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(3번, 4번)은 클릭하면 사라지며 바람직한 행동(1번, 2번)은 굵은 글씨체로 바뀐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지금까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잘 생각해보며 이 퀴즈를 풀어봅시다. (퀴즈 문제와 4가지 보기를 함께 읽어준다.) 이 4가지 중에서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. 4가지 중에 선택해보세요.

유아: (바르게 손을 들고 4가지 중에 선택하여 대답한다.)

교사: (1번을 선택했을 때) 앞서 말했듯이 친구의 휠체어가 친구의 다리이듯이 친구의 보청기는 듣는 것을 도와주는 ‘귀’와 같은 것이에요. 누군가가 내 귀를 말도 없이 만지면 기분이 어떨까요? 허락 없이 그 친구를 만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.

(2번을 선택했을 때) 잘 듣지 못하는 친구는 뒤에서 누가 올 때 걸어오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돌아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놀라게 한다면 이 친구는 우리보다도 더 많이 놀랄 수 있어요.

(3번을 선택했을 때) 듣기 어려운 친구는 우리가 말할 때 입모양을 보고 어떤 말인지 알 수 있는 연습을 한 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와 이야기 할 때에는 옆에서 말하는 것보다 친구와 마주보고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 해주면 친구가 알아듣기 더 쉽겠죠?

(4번을 선택했을 때) 우와, 맞아요. 시끄러운 곳에 있다면 듣는 것이 더욱 어려울 거예요. 이럴 때에는 친구가 아는 그림이나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서로 더욱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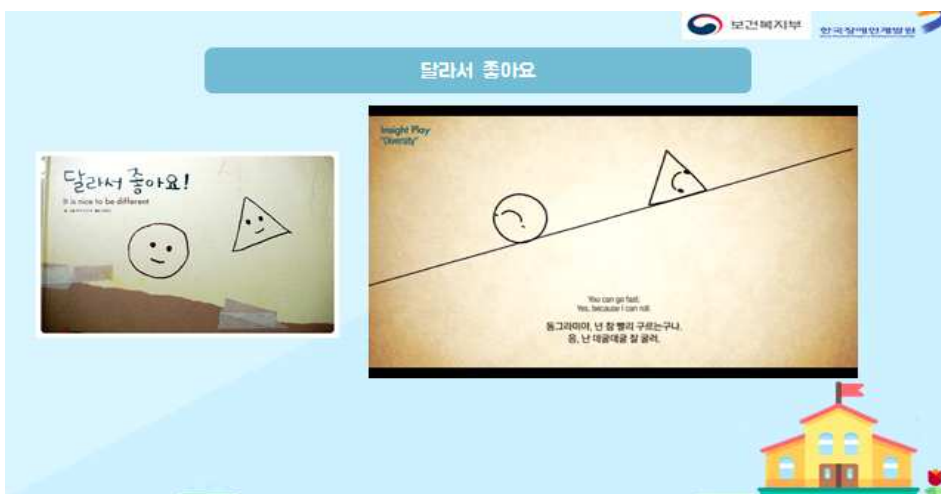
■ <장애의 정의 관련>

[시나리오]

교사: 이 그림들을 보세요. 어떤 그림 같아 보이나요?

유아: 창문이요. 깃발이요. 집이요.

교사: 이렇게 창문, 문, 깃발, 집이 따로 있어요. (클릭 후에) 하지만 이렇게 합쳐 놓으면 멋진 학교로 변신한답니다.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의 창문, 깃발, 문처럼 각각 한 명 한 명마다 다른 사람이지만 이렇게 우리 유치원 ○○반에 모여 있으면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도와 더욱 멋진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.



- <장애의 정의 관련>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좋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한다. ‘달라서 좋아요!’ 도서를 읽어주거나 이 도서와 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.

[시나리오]

교사: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해요. 여기 나오는 동그라미와 세모처럼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, 잘 하는 것도 다르고, 좋아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더욱 재밌게, 더욱 신나게, 더욱 즐겁게 지낼 수 있답니다.